



“연기 인생 큰 도전 ‘발연기’ 두려웠죠”

영화 ‘히스토리’ 위안부 할머니 돕는 역 김희애 “부산사투리·일본어 대사 ... 꿈에도 나올 정도”

“정말 많이 떨었어요. 이런 귀한 영화에 제가 ‘발연기’를 하면 어쩌나 하는 중압감이 엄청났죠.”

연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는 김희애(51·사진)가 발연기 격정이라니, 잘 어울리지 않았다.

12일 종로구 팔판동에서 만난 김희애는 영화 ‘히스토리’가 그만큼 그의 연기 인생에 큰 도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제 나름대로 경력을 쌓아왔는데 (연기를 잘 못 해) 웃음거리가 될까 봐, 또 할머니들께 누가 될까 봐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죠.”

오는 27일 개봉하는 ‘히스토리’ (민규동 감독)는 1990년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6년 재판 끝에 일부 승소를 받아낸 일명 ‘관부재판’ 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김희애는 할머니들 재판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부산 지역 여행사 사장 문정숙 역할을 맡아 극을 이끈다. 할머니들 아픔을 공감한 문정숙은 원고단 단장을 맡아 사재를 털어 재판을 지원하고, 일본 법정에서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일본어로 통역한다.

“어배우가 선택할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 들어온 시나리오여서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무엇보다 할머니들과 문정숙의 당당한 삶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렇게 덜컥 출연에 응했지만, 김희애는 처음 도

전한 부산사투리 연기와 비중이 상당한 일본어 대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사투리 지도 교사를 매일 만나다시피 했고, 부산 출신 다양한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억양을 익혔다. 일본어 역시 우리말로 쓰인 대사를 외우고 또 외었다.

“일본어 연습을 너무 해서 지금도 대사가 생각나요.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갔나 봐요. 처음에는 한글로 써진 일본어를 읽지도 못했어. 음악처럼 리듬과 억양을 익혀야 외워지는데, 한 문장도 외우기가 쉽지 않았죠.”

자기 전에 항상 일본어 대사를 들으면서 잤다는 그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꿈에서 지인들이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제가 답을 못했죠. 꿈인데도 그분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 노력 덕분에 영화 속에서 김희애는 제법 차진 부산사투리와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한다.

김희애는 여장부 스타일의 문정숙을 연기하기 위해 외모에도 변화를 줬다. 쇼트컷을 하고, 얼굴을 반쯤 가린 커다란 안경을 썼다. 노력 분장과 함께 살도 5kg 정도 찌웠다. 그간 주로 선보인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함께 출연한 김해숙이 김희애를 물리봤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어배우 하면 예쁘고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편견이 있는데, 그런 편견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연기할 수 있어 배우로서 편안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중 ‘우아해 보인다’는 말을 건네자 강하게 손사래를 쳤다.

“저더러 가끔 우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활인이고 대학교 1학년, 고3짜리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제 일을 하고, 장을 직접 봐서 음식도 하죠. 꾸밀 시간이 없어서 운동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평소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평가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희애는 ‘히스토리’에서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등 쟁쟁한 선배 배우들과 연기했다. 모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 출연해 절절한 사연을 증언한다. 문정숙을 옆에서 지원하느라 신사장 역할을 맡은 김선영과는 ‘워맨스’ (워먼과 로맨스를 합친 말)를 선보였다.

“(선배들의 연기를 보면서) 살아온 연륜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죠. 연기 차례가 왔을 때 오디션을 보는 것처럼 다들 굉장히 긴장하면서도 완전히 몰입해서 연기하는 것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어요. 때로는 소녀처럼 수줍어하시는데, 그런 인간적인 순수함이 연기에도 순수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김희애는 인터뷰 내내 자신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했다. 그러면서도 배우로서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저는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세배, 네 배는 노력하죠. 앞으로도 작은 역할이라도 소품처럼 작품을 빛낼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 시청률 26.53%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는 순간 실시간 시청률이 26.53%를 기록했다.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시청률을 조사하는 ATAM은 이날 오후 2시 39분부터 2시 45분까지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북미정상회담 공동 합의문 서명식’ 시청률 합이 26.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순간 실시간 시청률이 31.02%를 기록했다.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간 시청률을 조사하는 ATAM은 이날 오전 10시 4분 5초부터 10시 4분 40초까지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보도채널 2사가 생중계한 ‘2018 북

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역사적 첫 악수’ 시청률 합이 31.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주(5일) 동 시간대 시청률(17.87%) 대비 13.15%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채널별로는 KBS 1TV 5.69%, MBC TV 4.19%, SBS TV 6.30%, JTBC 7.04%, MBN 1.83%, TV조선 2.12%, 채널A 1.05%, YTN 1.08%, 연합뉴스TV 1.72%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문건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한 순간의 실시간 시청률은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합계 34.06%였다.

한편, 또 다른 시청률 조사회사 TNMS가 집계한 두 정상 간 첫 만남 순간 실시간 시청률은 22.4%를 기록했다. TNMS는 CJ헬로 전체가

입자 전국 420만명 중 실시간 시청기록 수집이 가능한 가입자 25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연합뉴스



‘1박2일’ 예능 최초 판문점 방문

24일·내달 1일 방영

KBS 2TV는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즌 3’〈사진〉이 대한민국 예능 최초로 판문점에 갔다고 11일 밝혔다.

제작진은 “판문점을 관할하는 UN사에 수년 동안 촬영 협조 요청을 보낸 결과 판문점 방문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1박 2일’ 출연진은 판문점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교감했다.

멤버들은 “눈앞에 있는 곳을 직접 가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전했다.

오는 24일과 다음 달 1일 오후 6시 20분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특집 모닝와이드 1~2부
[7]	50 KBS 뉴스특보 -2018 북미정상회담		0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뉴스특보	
[8]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9]		00 파도야 파도야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	35 복면가왕 스페셜 에디션	00 2018 국민의 선택 1부
[10]				30 집사부일체 1~2부
[11]		30 슈츠 (재)		
[12]			00 특집 12 MBC 뉴스 30 두니아-처음 만난 세계 스페셜	00 특집 SBS 12 뉴스 50 혼남정음 (재)
[1]		30 해피투게더 스페셜		
[2]		50 너도 인간이니? (재)	40 라디오스타 스페셜	00 특집 뉴스브리핑
[3]			50 배철수의 선거캠프	
[4]	00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50 거기가 어딘데?? 특별판	5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1부	50 2018 국민의 선택 2부
[5]				
[6]	30 2018지방선거 광주충국 개표방송 50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30 2TV 생생정보		
[7]		50 인형의 집	20 특집 MBC 뉴스데스크	10 2018 광주전남의 선택 30 2018 국민의 선택 특집 SBS 8 뉴스 3부
[8]	15 2018지방선거 광주충국 개표방송 35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특집 볼쇼이영표 55 살림하는 남자들		40 2018 광주전남의 선택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 2~3부	00 2018 국민의 선택 4부
[10]	00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00 슈츠		30 2018 광주전남의 선택 50 2018 국민의 선택 5부
[11]	00 2018지방선거 광주충국 개표방송 20 2018 지방선거 선택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10 추적 60분		
[12]		10 IFA 월드컵 러시아 2018 기획 세상의 모든 다큐		00 2018 광주전남의 선택 20 2018 국민의 선택 6부

EBS1	
05:00 왕초보 영어	〈얼굴이김치와 양배추김치〉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여행 - 치앙마이, 전통의 불빛〉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10 EBS 초대석
07:00 용감한 소방차 레이	13:00 지식채널e
07:30 꼬마버스 타요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댕 유치원1~2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재)
08:30 미니특공대 X	14:30 코코몽3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09:00 엄마까투리	15:15 파프리카
09:30 윈디볼즈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0:30 한국기행(재)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30 칼랄라 뿌우(재)
	16:45 당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까투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초이슈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은둔의 낙원 3부 왜 산으로 오셨나요〉
	21:50 EBS 다큐프라임 〈한국사 오천년 6부〉
	22:45 극한직업
	23:55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24:45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3일 (음 4월 30일 丙子)	
	36년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48년생 수시로 변하는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 60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72년생 최선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일이다. 84년생 제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교두보가 형성된다. 행운의 숫자 : 47, 89		42년생 햇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54년생 원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판국에 이르렀다. 66년생 담백하고 말하는 셈이니 입만 아플 것이다. 78년생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괜찮다. 90년생 기뢰이노라. 행운의 숫자 : 07, 81
	37년생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49년생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이 시급하다. 61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73년생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85년생 주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판단하라. 행운의 숫자 : 82, 09		43년생 찬스들이 연달아서 다가 올 수 있다. 55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67년생 근원부터 해결해야 바로 잡을 수 있겠다. 79년생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91년생 급작스러운 단절과 변화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5, 72
	38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잘 살피자. 50년생 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62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라 할 만하다. 74년생 원칙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치리라. 86년생 조만간에 곧 결정이 낫 것임에 틀림 없다. 행운의 숫자 : 46, 84		44년생 예상이 빗나가 버릴 수 있다. 56년생 선택하기에 따라서 영욕의 부침이 온니차자가 될 것이다. 68년생 간접적인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0년생 많은 의문을 남기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나. 92년생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2, 29
	39년생 반복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위상이다. 51년생 허장성세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순조롭겠다. 63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75년생 초심대로라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87년생 있어도 없는 것 같으리라. 행운의 숫자 : 37, 67		45년생 벽을 치면 대들보가 올리는 법이다. 57년생 주력하라. 69년생 조상의 음덕을 입고 있으니 정성을 다한다면 필연코 행운이 따르리라. 81년생 목표에 성공성큼 접근하고 있느니라. 93년생 핵심 사실들을 유념해야 빈틈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37
	40년생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52년생 취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편이로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다. 76년생 분수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탈고 일어서야 한다. 88년생 밝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92, 35		34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46년생 무자식이 상팔자다. 58년생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빈틈없어야만 한다. 70년생 정밀하게 살펴 파악이 가능하다. 82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0, 16
	41년생 한 걸음 더 가까이 한다. 53년생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간다. 65년생 일순간에 성과가 반실할 수도 있는 형세이다. 77년생 대체에 순응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89년생 문제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6, 93		35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리라. 47년생 실수를 할 수 있다. 59년생 애견된다면 피하라. 71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길방과 에너지를 잘 선택하여 기회를 잡아 보자. 83년생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나. 행운의 숫자 : 97, 0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